

# ‘다시 오월’...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원년’되길

46주년 슬로건 ‘오월의 꽃, 오늘의 빛’ 기념행사 다채...전야제 16-17일 이색 복원 옛 전남도청 개관 접쳐 의미 더해 ‘개정 ‘마지막 관문’ 국회 의결 국힘 必’



4월의 마지막 날이자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3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영권 기자

다시 오월이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인 올해 ‘오월 광주’의 의미는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복원 공사를 마친 옛 전남도청은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고 기념식 전 국회에선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최후 항쟁지가 되 살아난 올해가 오랜 염원이 현실이 되는 원년으로도 기록되길 열망하고 있다.

◇행사위 공모 협력사업 시작...추모 열기 고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가 정한 올해의 슬로건은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이다. 여기에는 1980년 5월 신군부에 맞서 꽃처럼 스러져간 영령들의 용기가 후대에 이어진 덕에 12·3 내란 사태를 시민 주도의 빛의 혁명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담겼다.

행사가 주관하는 기념행사와 시민 공모사업 40개, 협력사업 97개의 초점도 오월 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맞춰졌다.

일부 사업은 이미 시작됐고, 이번 주말 휴일부터 광주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국립5·18민주묘지 일대에선 광주민족에 솔인단체총연합 주최로 다음 달 3-30일 제7회 예술만장전 ‘유비쿼터스 민주주의라는 상상’이 개최돼 참배객과 함께 추모 열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주말·휴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각종의 100여명이 민주묘지를 참배할 것으로 예정됐다.

◇기념식 옛 전남도청서...당일 정식 개관도 5월16-17일 동구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일대에선 ‘오월, 일상의 민주주의로’를 주제로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전야제가 이틀로 늘어나면서 16일 진행되는 ‘민주의 밤’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짜여졌다. 기념 행사와 별도로 17일 민주묘지에선 5·18민주공화국 유족회 주최로 추모제와 추모식이 열린다.

18일 기념식은 역대 두 번째이자 2020년 이후 6년 만에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개최된다.

기념식 세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일 옛 전남도청이 정식 개관하기로 한 만큼 행사 연계 추진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 관리 등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6·3지방선거 동시투표 성사 국힘 참여 필수 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소속 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한 이후 현재 대통령의 공고까지 이뤄져 공포까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만 남았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의 설문 조사로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드러난 만큼, 사실상 남은 관문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국회의결뿐이다.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의원직 사퇴로 재적 인원이 줄어들어 필요한 찬성표도 감소했지만, 공동 발의자에서도 신분상의 변동이 있어 국민의힘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마지막 문턱을 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광주·전남을 넘어 국민의 염원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개별 의원실을 찾아 투표 참여를 요청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안재영·이연상 기자

## ‘10명 사상’ 광주 카페 돌진 “운전자 과실”

법원, 60대에 금고 2년4개월 선고 사고 2년만에...법정구속은 안해

광주 한 카페로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죽고 9명이 다친 사고 약 2년 만에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차

사상)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지난 28일 금고 2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18일 오후 12시5분께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하다가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1명이 죽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점심 시간을 맞아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는 사고에 대해 급발

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기록장치를 분석했을 때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서 밟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의 결과가 참혹하고 중대한데, 일부 피해자는 A씨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건 불리한 정상”이라며 “순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이고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 ‘CU 파업현장 사망’ 화물연대 간부 ‘노동·시민사회장’

빈소 순천...오늘부터 삼일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최근 진주 CU 물류센터 파업 현장에서 사망한 전남본부 간부의 장례를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입수한다

30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숨진 간부의 빈소는 유족의 뜻에 따라 순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1일부터 삼일장으로 치러진다.

장례는 이날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와 CU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단체 협상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확정됐다.

화물연대는 이번 장례를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형식으로 치러 고인의 넋을 기리고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인은 다음 달 3일이며, 이후 광양에서 화장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숨진 전남본부 간부는 전국 각지의 파업과 집회에 순회 참여하다가 진주 현장에서 비조함원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 /윤찬용 기자

## 광주 한 식당서 ‘집단 식중독’...서구 “행정 처분”

최근 일주일간 33명 증상 음식 등서 살모넬라 검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광주 한 식당에서 원인이 검출돼 행정당국이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화정동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설사와 복통, 오한 등의 증세를 보인 환자가 이날 오후 4시 기준 33명으로 집계됐다.

최초 신고 접수 당일 서구보건소는 해당 식당을 찾아 종사자와 음식,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조리기와 식재료, 식품을 수거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계란말이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됐다. 살모넬라는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이다.

음식 외에도 의심 환자 7명에게서 살모넬라가 검출돼 서구보건소는 해당 식당의 조리나 음식물 보관 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를 참고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식당은 지난 28일부터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상 기자

### 횡단보도 우회전 사망사고 운전자 징유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8시5분께 광주 광산구 운수동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 B(17)양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순간의 부주의 탓에 발생한 사고였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